

# 축산소식\*



## ■ 미 웬디 커틀러 대표 “쇠고기 전면개방해야 FTA 비준” 발언

### “국민건강 위협 말라” 반발 고조

웬디 커틀러 대표가 지난 16일 오찬간담회에서 “한·미 FTA 협정이 미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해서는 한국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시장을 전면 개방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 가운데 축산·시민단체들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처사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전국한우협회(회장 남호경)는 지난 16일 성명서에서 “왜 한·미 FTA 선결조건이 국민건강과 직결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돼야 하느냐”고 반문하며 “미국은 쇠고기 시장없이 한·미 FTA를 비준받기 어려울 정도로 자신이 없는가”라고 꼬집었다.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도 논평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기준은 FTA가 아니라 광우병 위험으로부터 안전”이라며 “불량 쇠고기 장사꾼 웬디 커틀러는 남에게 뭘 하라고 하기 이전에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커틀러 대표가 “60만개 상자 중 뺏조각이 발견된 것은 10개 미만으로 통계적으로 볼 때 미미한 수치”라며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고 말한데 대해 범국본은 “자장면에서 바퀴벌레가 나와도 바퀴벌레만 들어내면 자장면은 아무 문제 없으니 먹으라는 것과 같다”고 반박했다.

권력과 외압에 좌지우지되고 있는 정부에 대한 비판도 끊이지 않았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17일 성명서에서 “정부는 협박과 강요로 얼룩진 FTA 협상을 하려는 이유가 무엇이나”면서 “미국의 고압적 자세는 그동안 협상의 전 과정에서 강대국가의 면모를 보이며 강요와 협박으로 이뤄졌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한우협회의 관계자는 “우리 정부는 대체 자존심도 없고 양심도 없는가”라면서 “왜 우리가 애써 한우 산업을 벼랑 끝으로 몰아가면서 미국에 FTA를 구걸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한국농어민신문 이현우 기자 [최종편집 : 2007년 10월 22일]



## ■ 우유보다 더 뽀얀 ‘우유빛 얼짱’ 을 찾아라

낙농자조금관리위, 11월 4일까지 ‘얼짱 이벤트’ 실시  
낙농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승호)는 우유 소비 촉진을 위한 close to you 캠페인의 일환으로 개설된 싸이월드 타운홈피([town.cyword.com/milkpower](http://town.cyword.com/milkpower))에서 23일부터 11월 4일까지 13일간 최고의 우유 빛 미인을 뽑는 ‘얼짱 이벤트’ 를 실시한다.

이번 행사는 ‘우유 마시고 이렇게 예뻐졌다’ 는 주제로 실시되며, 밀크파워 타운홈피 방문자 누구나 “얼짱 이벤트” 코너에 사진을 올리고 참여할 수 있다. 사진은 별도의 규격제한이 없으며 포토샵 처리



를 한 사진으로도 응모 가능하다.  
우유 섭취로 건강한 아름다움을 잘 보여준 참여자 중 2명에게는 닌텐도 게임기를, 5명에는 요구르트 제조기, 10명에는 아이리버 mp3 등 다양한 경품을 제공한다. 우유와 친밀감을 형성하고 우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이번 이벤트는 참가자들이 우유의 효능과 우수성을 느끼는 기회가 될 것이다.

또한, 밀크파워 타운홈피에서는 일촌 신청을 하는 모든 신청자 중 하루에 20명을 추첨하여 도토리 5개씩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10월 29일부터 11월 7일까지 10일간 진행된다.

▶ 라이브뉴스 양은실 기자 a1@livesnews.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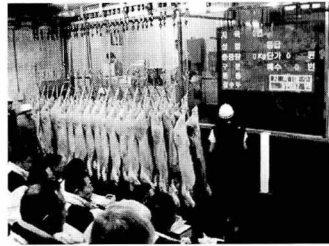
[최종편집 : 2007년 10월 24일]



## ■ 돼지고기 선물거래 시대 열린다.

재경부 선물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이르면 연내 개설

재경부의 선물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 안으로 입법예고되면 금융감독위원회에서 11월에 돼지고기 선물거래시장 개설을 승인해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전산시스템 준비과정 등을 거쳐 이르면 올 연말에는 돼지고기가 축산물 가운데 처음으로 선물시장에서 거래될 예정이다



돼지고기 선물거래 시장이 이르면 올 연말에 개설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선물거래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오는 18일 관계부처 간 협의회를 마지막으로 열고 이달 안으로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재정경제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는 선물거래 시 불공정거래에 대한 보완대책 등이 담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돼지고기 선물거래시장 개설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이 있는 금융감독위원회는 재경부의 선물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이후인 11월 초에 돼지고기의 선물거래를 허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금융감독위원회는 돼지고기 선물거래시장을 개설해달라는 증권선물거래소와 농협투자선물의 요구에 대해 불공정거래 및 양돈농가 피해 예방책이 마련돼야 한다면 재경부의 선물거래법 시행령 개정 이후로 승인을 유보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인수 농협투자선물 팀장은 “금감위는 재경부가 선물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경우 큰 변동 없이 시행령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재경부의 입법예고에 이어 곧바로 돼지고기 선물거래를 승인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따라서 돼지고기의 선물시장 첫 거래는 11월 금감위 승인과 약 한달이 소요되는 전산시스템 보완 및 시험 가동기간 등을 감안, 이르면 12월 중순 이후

# 축산소식\*

에는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새로운 선물거래법 시행령은 20일 간의 개정 안 입법 예고기간과 업계 의견수렴 과정 등을 거쳐 고시로 확정되며 이르면 올 연말이나 늦어도 내년 초에는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용어설명: 돼지고기 선물거래란=돼지고기를 일정 시점에 일정 가격으로 사거나 팔기로 현재에 미리 약속하고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농산물 거래 방식의 하나인 '밭떼기'와 유사하나 선물거래소라는 공인된 시장에서 거래되고, 계약 이행을 선물거래소가 보증함에 따라 계약 불이행의 위험이 줄어들어 든다는 것이 다르다.

예를 들어 양돈농가가 10월 출하 때 돼지고기값 23만원을 예상하고 그 이전인 5월에 미리 이 가격으로 선물거래소에서 선물거래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만약 10월에 도매시장 대표가격이 25만원이라면 양돈농가는 돼지고기 판매금액에서 선물계약한 가격의 차이인 2만원을 선물거래 손실로 내놓아야 한다. 그러나 반대로 값이 급락해 18만원에 형성될 경우 5만원의 이득을 보게 된다. 현재 돼지고기 선물시장이 개설된 나라는 미국·독일·네덜란드·헝가리 등 4개국이다.

▶ 농민신문 류호천 기자 fortune@nongmin.com

[최종편집 : 2007년 10월 17일]



## ■ 육계시세 오름세... 소닭 강세

바닥까지 떨어졌던 육계시세가 다소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주 육계시세는 금요일인 12일 산지대 닭기준 kg당 940원으로 약간 올랐으며 소닭의 경우 kg당 1140원으로 소닭이 강세를 보였다.

이는 육계시세가 바닥시세에서 오르기 시작하면서 기대심리가 작용해 출하를 늦추면서 소닭출하물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업계에서는 유통물량이 줄었으며 농가에서 출하예정물량이 적을 것으로 전망돼 다음주에도 가격이 다소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양계협회에 따르면 양계협회 회원농가 24농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부화장 병아리 실적으로 볼 때 5386마리에서 5576마리로 다소 늘어난데다가 군납 예정물량도 거의 다 채워진 상태이기 때문에 보험세를 보일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육계시세는 소닭의 경우 강세를 보일 것이지만 대닭시세는 보험세이거나 약간 오름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 농수축산신문 안희경 기자 nirvana@afnews.co.kr

[최종편집 : 2007년 10월 15일]



## ■ “양봉인 단합으로 위기극복” 의지 다져



## ‘제35회 양봉인의 날’ ‘2007 벌꿀축제’ 개최

양봉협회(회장 전기현)는 지난5·6일 양일간 제35회 양봉인의 날(사진)과 2007벌꿀축제가 충북 보은에서 개최했다. 특히 이번 양봉인의 날을 어려운 현실을 단합된 모습으로 함께 극복하자는 양봉농가들의 의지를 다지는 행사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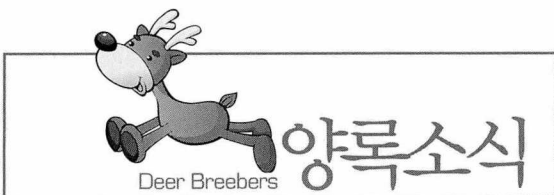
전기현 회장은 “양봉산업은 현재 위기를 대체 밀원수 확보와 안전벌꿀 및 양봉산물 생산 등으로 극복해야할 중요한 시기”라며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누구의 도움에 의해서가 아닌 우리 스스로 해야 한다. 협회를 중심으로 힘을 모아 노력할 때 우리 양봉산업은 밝은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보은종합스포츠센터 체육관을 가득 메운 양봉인들은 큰 박수로 단합의지를 다졌다.

기념식에 참석한 김달중 농림부차관보는 “양봉산업은 이제 단순한 꿀의 생산에서 벗어나 다양한 양봉산물이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봉독이 상용화될 경우 벌통 1개당 연간 20만원의 추가수익이 기대되는 만큼 정부차원의 지원을 적극 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행사 첫날 5일에는 양봉인들의 도별 체육대회가 열렸고, 6일에는 제35회 양봉인의 날 기념식과 관련 업체 기자재전시회 등이 열렸다.

▶ 축산신문 보은 최종인·이동일 기자

[최종편집 : 2007년 10월 10일]



## ■ 사슴 저변 확대 전망

### 양록협, 우수 농가와 정액공급계약 체결

양록협회가 최근 우수사슴 생산농가와 정액공급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국내 우수사슴의 저변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한국양록협회(회장 강준수)는 2007년도 우수사슴 선발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한진곰사슴농장 한의석 대표와 최근 ‘우수사슴 정액공급 협약’ 을 체결했다. 사슴은 그 동안 정부의 중축개량 대상축종에서 제외가 되어 농가 스스로 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정액공급 협약이 체결됨으로서 높은 생산성을 지닌 우수 사슴의 저변확대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번에 체결된 협약의 내용을 보면, 2007년도 우수사슴 선발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한진27호’의 정액을 채취하여 희망하는 양록농가에게 공급하는 것. 한의석 사장은 “협회와 정액공급 협약을 체결한 것을 계기로 자신처럼 사슴개량을 위한 정액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가 없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강준수 회장은 “정액을 채취하는 한진27호는 우수사슴 선발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사슴이므로 이미 그 능력이 입증되었고, 정액을 희망하는 농가에게 선착순으로 300두 분량의 정액을 우선 공급할 예정이며, 농가의 호응도가 높으면 규정 개정 등을 통하여 내년 대회부터 대상사슴의 정액채취를 의무화하는 것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정액 신청은 양록협회에서 받으며, 협회 회원인 농가에게만 공급할 예정이다.

▶ 축산신문 이동일 기자 dilee@chusannnews.co.kr

[최종편집 : 2007년 10월 4일]